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12월 27일(월) 총 3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자원순환과	담당자	• 자원재활용팀장 홍 성 이 ☎440-3571 • 담당자 양 수 영 ☎440-3572			
사 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려지던 플라스틱, 직원 네임택 1만개로 ‘한골탈태’

- 인천시, 폐완구류 자원화사업 통해 회수한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선보여 -
- 원료 가공부터 생산까지 발생지 내 자원 순환체계 구현 의미 깊어 -

인천광역시가 올 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완구류 분리배출 및 회수·선별 시범사업을 통해 모아진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직원용 네임택 1만개를 제작해 시 본청 및 사업소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부터 한국환경공단, (사)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복합재질로 분리배출이 어려워 종량제봉투로 버려지는 완구류를 플라스틱으로 배출하도록 하고 이를 선별해 11월말 현재 126톤의 플라스틱을 회수했다.

시는 이렇게 회수된 완구류 플라스틱인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재질이 내충격성과 치수안정성이 우수하고, 열변형 온도가 높으며, 가공성이 용이하다는 점에 착안해 직원용 네임택을 제작하기로 했다.

기존 재생ABS가 대부분 검정색이나 회색으로 건축자재, 자동차 내외장재 등으로 주로 쓰였다면, 이번에 사용되는 재생ABS는 폐완구류 플

라스틱 중 흰색 중심의 선별과정을 거친 고품질의 원료라는 것이다.

이번 사업은 전국 최초로 올바르게 배출된 완구류 플라스틱이 네임텍으로 업사이클링된 사례로, 인천시가 회수된 폐완구류의 플라스틱을 원료 가공부터 디자인 및 설계, 금형제작, 생산까지 발생지 내 자원순환체계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이번에 제작한 네임텍은 카드 부분은 폐완구류 플라스틱을 100%, 목걸이 부분은 투명페트 원사 50%를 사용한 업사이클링 제품이며, 네임텍 10,000개를 만들 경우, 회수된 플라스틱 350kg, 투명페트병(500ml) 2,500개의 대체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낙식 시 자원순환과장은 “버려지는 재활용품이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자원순환을 좀 더 쉽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생활 속 자원순환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노력해 나갈 뜻을 밝혔다.

<붙임> 사진자료

